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2년 5월 3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5.3.(화)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2. 5. 2.(월)	담당부서	통상정책총괄과
담당과장	고상미 과장(044-203-5620)	담 당 자	강호건 사무관(044-203-5626)

통상 전문가들, 세계 공급망 재편과 아태 통상질서 참여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 주문

-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통상전문가 간담회 개최 -

□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5.3(화) 통상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세계 공급망 위험요인,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,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등 **최근 직면한 통상현안 전반**에 대한 **정부의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**을 논의함

□ 금일 간담회는, 최근 **주요 통상현안**에 대해 **통상교섭본부장 주재하에** 집중적으로 개최된 **민관 합동 릴레이 간담회***에서 **논의된 내용을 종합 검토**하기 위해 마련되었음

* 글로벌 공급망 현안 간담회(4.29),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(IPEF) 공급망 분야(4.28) 및 디지털 분야(4.14) 민관 대책회의,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업계 간담회(4.27), 탄소 무역장벽 대응 논의(4.26), 대러 수출통제 간담회(4.27), 수출입 물류 간담회(4.21) 등

○ **정부의 통상정책 방향**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러시아-우크라이나 사태, 중국의 코로나19 지역봉쇄에 따른 핵심 원자재 수급 등 기업·국민생활에 즉시 영향을 미치는 **긴급한 현안**에 대한 **대응 방안**도 함께 논의함

< 통상전문가 간담회 개요 >

- **일시/장소** : '22.5.3(화) 11:50~13:00 / 서울 롯데호텔
- **참석자** : [산업부] 통상교섭본부장, 통상정책국장, FTA교섭관, 신통상질서정책관 등
  [전문가] 강문성 고려대 교수, 서정민 숭실대 교수, 안덕근 서울대 교수, 안세영 서강대 교수,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, 표인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(가나다 順)
- **논의** : 공급망 위험요인 등 최근 통상환경 점검, 당면 현안에 대한 통상정책 방향

□ 이날 참석자들은 **지난 2월 발족된 "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"**와 같은 **민관 협력 기반을** 대폭 **강화**해 나가는 등 기업과의 소통에

기반한 **산업부의 강점**을 **최대한 활용**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면서, 최근 통상현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**정책 제언을 제시**함

* '22.9월 산업부는 무역협회·코트라와 함께 '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'를 출범, 현재까지 국내 30여개 업종별 협단체 등과 민관 협력 연결망을 구축

○ 서울대 안덕근 교수는 최근 경제안보 측면에서 **산업기술안보·에너지안보·무역안보**를 포괄하는 **통상 부문**의 **중요성**이 **부각**되는 가운데, **정부·업계**가 **역량을 결집**하고 **국제사회가 지향**하는 **가치·원칙을 공유**하는 **교역국들과 협력**하는 **개방형 통상 전략**을 강조

○ 숭실대 서정민 교수는 **세계 공급망의 최적화 주체**가 **기업에서 국가로 점차 바뀌는 상황**에서 대외 위험요인에 강한 **통상 방파제**로서 **정부의 역할이 보다 강조**되는 **상황**임을 지적

○ 고려대 강문성 교수는 **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**(IPEF)에 **가입**해 **균형잡힌 통상정책**을 수행할 필요성을 지적하고, 국가안보 차원의 기술보호를 위해 **외국인투자 심사 제도를 정비**할 필요성도 강조

□ **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**은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 **경제 전반**에 **상시화된 공급망 교란**이 통상 환경의 대표 **위협요인**으로 부상되고 **아태 지역**의 **통상 질서도 급격하게 변화**되고 있음을 지적하며,

○ 향후 ▲상시화된 공급망 **위기 점검**을 강화하고 ▲**수입국 다변화** 등 공급망 안정화 기반을 마련해나가는 한편 ▲핵심광물·원자재 및 첨단기술을 보유한 **공급망 핵심 국가**와의 **통상협력 연결망을 경제안보 시대의 핵심 국가자산**으로 잘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힘

○ 또한 현재 가장 우선적인 통상의제인 **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** 및 **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**(IPEF) 가입의 경우, '국익 우선의 협상'이라는 기본원칙 아래에 **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**하고 **안정적인 역내 공급망 구축**을 위한 **기회의 장**으로 **적극 활용**하겠다고 강조함

OPEN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강호건 사무관(☎044-203-562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